

2016 年 주교사목서간

하느님 아버지처럼 자비롭게

~자비의 특별 희년을 걷자~

교토교구 주교 바오로 오오츠카 요시나오

■ 머리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공포한 『자비의 특별희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 희년의 모토는 『하느님 아버지처럼 자비롭게』입니다. 자비란 하느님 아버지만의 모습만이 아닌 우리들 또한 하느님 아버지처럼 자비를 살아 가자는 호소입니다. 교황님은 이 특별 희년을 보다 뜻있게 보내기 위해 순례를 행하는 것 만이 아니라, 신자 한명 한명이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사람을 심판하지 않을 것, 용서할 것, 사회에 구속되어진 약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자비를 베푸는 것을 권고하고 계십니다.

교토 교구는 2 년에 걸쳐 하느님이 선택한 가난함에 대하여 생각해 왔지만, 하느님의 자비라는 테마는 가난함과 밀접하게 관계 되어진 테마입니다. 작년 11 월 29 일 성탄절 제 1 주일에 발표한[자비의 특별 희년을 맞이하여]에 있어서 특별 희년의 개최 요항에 관하여 썼으므로 이번 사목서간에서는 『하느님의 자비』에 대하여 다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 1. [동정]과 [자비]는 일부러 한자 표기를 하지 않고 히라가나 표기로 통일 합니다)

2. 인용의 [대칙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특별 희년을 공포한 대칙서 [자비로운 모습](Misericordiae Vultus), [자비로운 하느님]은 성요한바오로 2 세 교황님의 1980 년의 회칙[자비로운 하느님] (Dives in misericordia)을 말하는 것 입니다.

1. 자비로우신 하느님과의 만남

[신앙의 인격적 감각]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자비로움, 그것은 우리들의 죄라는 한계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희망을 마음에 야기시키는 것으로, 하느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대칙서]2)라고 말씀 하십니다. 하느님의 자비란,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가난함과 함께 하느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특징하는 중요한 테마입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자신의 닮은 꼴로 만드시어 끊임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인간이 죄를 범한 뒤에는 그 잘못을 뉘우치게 하시고 용서하는 것에 의해 더욱 강하게 그 사랑을 보여 주십니다. 그 것이 하느님의 자비입니다.

출애굽기는 야훼 하느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시며 이렇게 외치셨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야훼다. 자비와 은총의 신이다. 줌처럼 화를 내지 아니하고 사랑과

진실이 넘치는 신이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베푸는 신, 거슬러 반항하고 실수하는 죄를 용서해 주는 신이다」(출애굽기 34.6-7). 구약성서에서는, 계약에 불충실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하느님이 얼마나 인내하시며, 반복적으로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약에 있어서 [정의와 공평]의 하느님께서는 그 태도를 일관하기 위하여 자신을 [사랑과 애정의 하느님]이라 계시하셨습니다(참조 호세아 2.21).

이렇듯이 하느님에 대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하느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시편 4.2.,6.3,9.14,25.16 등)과 같이 몇번이나 외침며 『하느님께 감사노래 불러라. 하느님은 어지시고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시편 107.1)라고 감사와 찬미를 드렸습니다. 우리들도 사랑이신 하느님을 신뢰하고 죄의 용서를 바라며, 하느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 보십시다.

## 2. 자비로움의 얼굴 예수님

[신앙의 발견적 감각]

하느님의 자비로우심을 찾아내는 곳은, 하느님 아버지를 대신하여 우리곁으로 오신 예수님과 만남속에 있습니다. 특별 희년을 공포하신 대칙서가 [자비로움의 얼굴]이라 머리말에 언급한 것 처럼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하느님의 자비로우심을 예수님의 모습에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하느님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요한 14.9 참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과 행함에 있어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비로움을 보는 사람, 찾아 내는 사람에 의해 하느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십니다』(에페소 2.4). 하느님 아버지로서 특히 [보이는 분]으로 계십니다([자비로우신 하느님]2).

하느님께서는 구원 하시려는 인간의 비참함도 몸소 체험 하시기 위해 하느님의 아들로 육화되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비의 그 자체입니다. 자비라는 그 말이 복음서에 사용되어지지 않아도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든것이 하느님의 자비의 재현 바로 그 자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자신의 전생애와 마지막 십자가상의 봉헌을 통하여, 하느님의 자비를 하느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여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비의 특별 희년에 성경을 자주 읽으면서, 사랑이신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자비의 조화를 묵상합시다.

## 3. 예수님 처럼 [불쌍히 여김]

[신앙의 인식적 감각]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지를 선교의 맨 처음에 선언하셨습니다(참조 루카 4.18-19). 예수님의 사명이란, 가난한 사람, 묵인 사람들에게 해방을 알려 주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사회의 부정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죄인으로 불려진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면 반드시 불쌍함의

마음을 기억하셨다는 것 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치유의 기적을 행하실 때 무감동적인 행위를 하시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어**』 행동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불쌍히 여기]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성경 원문에는 그리스어로 [창자.내장]를 의미하는 [스프랑크나] (사도행전 1.18)의 동사(動詞) [스크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스크랑크니조마이]라는 동사의 의미는 「내장이 온통 터지도록 일을 시키다」, 「내장을 잡아 틀다」 라는 하는 의미입니다. 이와나미역의 성경에서는 「내장이 찢어지는 느낌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하느님의 자비를 지칭하는 말 「라하뫼」(내장의 의미)를 계승하는 표현입니다. 자비는 고통받는 사람에게 공감하고, 인간을 깊은 곳에서 부터 움직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사이파의 위선을 경고한 것은 자비를 베푸는것으로써 내면에 있는 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 입니다(참조 루카 11.41). 자비는 이기주의 또는 자기만족으로 부터가 아니라 확실한 동기에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참조 마태오 6.1~4). 참된 자비란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부터 나오는 것 입니다. 고통 받는 사람을 공감하며 자비롭게 행동 합니다.

#### 4. 자비로우신 대사제 그리스도

[신앙의 그리스도론적 감각]

히브리서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자비롭고 진실한 대사제**』(히브리서 2.17)라 불리어 지고 있습니다. 대사제는 년 1 회 속죄의 날에 지성소에 들어가 하느님 앞에 백성을 대표하여 제물을 받치고 자기 자신의 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느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오신 성스러운 제물로써, 단 한번 자기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그런 대사제 예수님께서서는 **스스로 연약한 인간이 되셨습니다**(히브리서 5.2). 『**우리의 사제는 연약한 우리의 사정을 몰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유혹을 받으신 분입니다**』(히브리서 4.15)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서는 고통 받는 인간을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는 태도를 지니신 분이 아니라, 연약함과 죄속에서 고통을 울부짖는 우리들의 형제가 되신 대사제이십니다. 올해의 사순절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로 인해 베풀어 주신 자비를 깊이 묵상해 봅시다.

#### 5. 용서의 도구가 되어라.

[신앙의 성사적 감각]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우리들 그리스도인이 하느님 아버지로 부터 자비를 받은 사람들로써 하느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효과적인 「증거」가 되기 위한 「용서의 도구가 되어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대칙서 14]). 우리들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속죄로 통하여 이미 하느님이 베푸신 자비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인간에게 거만하고 불손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서는 형제를 용서하지 않은 종의 비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철저하게 형제의 죄를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고 명하십니다(마태오 18.22). 그리고 비유의 맺음에 이렇게 말씀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 처럼 너도 네 형제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할 것이 아니냐?**』(마태오 18.33) 우리들은 스스로는 결코 변상 할 수 없는 부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탕감 받았습시다. 그 자비를 받은 우리들이 자신에게 부채가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인간관계도 사회관계도 정의만 쌓으려 하면 잘 유지 되지 않습니다. 확실히 자신에게 적대시하고, 해를 끼치려고 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고통과 손해가 동반합니다. 그러므로 하느님 아버지로 부터 이미 갚을 수 없을 정도의 자비를 받는 은총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바오로 사도는, 새로운 계약을 토대로 죄를 용서 받고,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는 증거로써 『**서로 너그럽게 따뜻하게 대해 주며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에페소 4.32)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들도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든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태도만이 아닌 보다 적극적으로 상대를 용서하고, 상대방에게 선을 행하는 [용서의 도구]가 되도록 노력합니다.

## 6.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신앙의 실천적 감각]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자비를 받은 것만 아니라, 인간에 대하여 자비를 드러내시며, 항상 하느님의 사랑에 둘러 쌓인 은총을, 행복하다라는 축복의 형태로 표현하십니다. 산상설교에서의 진복팔단이라 불리어지는 행복의 5 번째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마태오 5.7). 그것은 자비로운 사람이 자비를 받고 있기때문에 행복하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이 자비롭게 되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용서로 인해 하느님의 자비를 이미 받았으므로, 자비가 넘치는 사람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이렇게 자비로운 사람에게 더욱 더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은 자비롭게 되면 될수록 하느님을 닮은 꼴이 되어갑니다. 자비로운 사람은 자신의 주위에 있는 자신이 도와야 할 가장 작은 사람을 알아차리고 그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하고 이웃이 되는 사람입니다. 생각하는 것만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예(루카 10.25~)에서 사마리아인이 보인 그 자상함을 목상하면서, 철저하게 친절한 행동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의 편지에서 『**누구든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의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마음의 문을 다고 그를 동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에게 하느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나 혀 끝으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합시다**』(요한 1서 3.17)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타인의 필요에 눈을 멈추고, 자비의 행동을 더욱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 합니다.

## 7. 방탕한 아들의 아버지의 기쁨

[신앙의 구체적 감각]

방탕한 아들의 예(루카 15.11~)를 생각 해 봅시다. 받을 예정이었던 유산의 배분을 받아 먼 나라에 여행을 떠났다가 신세를 망친,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란, 하느님의 값은 꼴로 만들어진 인간들이 그 은혜를 잊은 상태를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시대의 인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곁을 떠났던 아들은 더 이상 자신에게는 아들의 자격이 없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방탕한 아들의 아버지의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요? 방탕자 아들이 집으로 돌아 오는 것을 멀리서 본 아버지는 『**측은한 생각이 들어 달려 가 아들의 목을 끌어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 왔다**』 라고 말하며 성대한 잔치를 벌입니다. 그 아버지의 말 할 수 없는 기쁨은, 잃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하느님의 값은 꼴의 인간의 존엄이 망가지지 않고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던 것을, 자신을 위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무사히 돌아오고, 상대의 좋은점이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상대를 위해 기뻐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주님이시고, 하느님 아버지로 부터 나오는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자비로우신 하느님」 6).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랑을 쏟으시지 않으면 안되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인간이 사랑을 받을 처지가 아닐 때 더욱, 인간에게 사랑이 필요하니까, 사랑을 주십니다(「자비로우신 하느님」 2). 회심은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가, 인간의 마음에 계속 주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들도 하느님의 자녀로써 언제든지 하느님 아버지의 곁으로 되돌아가, 하느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에 감사 합시다.

## 8. 하느님 아버지처럼 완전하게 되자.

[신앙의 통합적 감각]

바리사이파와 법률학자의 의로움에 대하여 루카는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루카 6.36)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마태오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마태오 5.48). 「완전한 사람이 되다」 라는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리스어로 「완성하다」 라든가 「완수하다」 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 명사형 「테로스」는 완수해야할 목표라든가 목적이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완수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친다 라는 궁극적인 형식으로 「완수 하였다」,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사람이 되다」 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완벽한 인간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값은 모습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목적,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인간으로 되기 위해서 무엇이든, 사랑을 동기로, 사랑을 목적으로 하여 식별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함없이 사랑 하는 것, 그것은 바리사이파와 율법학자의 의보다 나은 의입니다. 그러므로

바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 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 할 수 없는 의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율법을 완성했습니다」(로마서 13.8).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은 그리스도교적 생활의 완성과 완전한 사랑에 다다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라고 제 2 바티칸공회의 교회헌장 40 에서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든 기회에, 누구를 대하든, 진심으로 사랑의 행동을 계속합시다.

## 9. 자신을 정당화 하지 않는다.

[신앙의 비판적 감각]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마음의 가난함](마태오 5.3)이란, 하느님에 대한 전면적인 신뢰를 갖고 자신의 불쌍함을 알고, 죄인인 것을 받아 들이며, 하느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바리사이파와 율법학자의 잘못은 스스로가 의인이라 생각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짧은 생각으로 죄인을 하느님의 구원의 대상으로 부터 배척하는 것 입니다. 그런 태도처럼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선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마태오 9.13). 그리고 [만약 『내가 반기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사랑이다』(호세아 6.6) 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라면 너희는 무죄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단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질책하셨습니다(마태오 12.7). 하느님 앞에서 자신을 정당화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겸손을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이지만, 하느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회심하는 것 입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하느님 앞에서 자신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고, 반대로 사랑에 가치를 두지 않는 자신의 흉함을 순수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신자들이 서로 미워하고 심판하는 것을 한탄하고 계십니다(대칙서 14). 자비의 특별 회년이야 말로 우리들도 자신의 교회의 신자들끼리 관계를 반성하고,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고 서로 형제처럼 사랑하며 자비심을 가지고 겸손한 사람들이 되십시오](1 베드로 3.8)라고 하시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고 각각의 공동체에서 실행해 봅시다.

## 10. 자비의 상호관계

[신앙의 공동체적 감각]

자비의 특별 회년의 기도에는 [주님께서서는 주님을 섬기는 이들도 나약함으로 돌아오고, 무지와 잘못에 빠진 이들과 함께 아파하기를 바라셨으니, 주님을 섬기는 이들을 만나는 모든이가 하느님의 보살핌과 사랑과 용서를 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소서]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부분은 히브리서의 [자비롭고 진실한 대사제](히브리서 2.17) 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모범이 되셨습니다. 우리들은 자비로우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와 같이 약함을 몸에 지니면서도 주위의

[무지와 잘못된 어둠 속을 걷는 사람들에] 대하여 자비의 태도를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이상으로 그런 우리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자신은 하느님으로 부터 필요로 하고, 사랑 받으며, 용서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하느님의 사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깊은 시사가 넘치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자비로운 사랑은 인간간의 상호관계속에서 체험하는 것으로, 결코 상대에 대하여 일방적인 행위로 실행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쪽만 부여하고 다른 한 쪽은 받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상호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봉사를 행하는 사람은 상대로 부터 기대하지 않는 기쁨을 받습니다. 부여하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되는 것 입니다. 바오로는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습니까?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습니까? 서로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나누며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되십시오](필립비 2.1-2). 우리들도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기쁨을 만끽 합시다.

## 11. 성령의 이끄심에 맡기고 이웃을 용서하기

[신앙의 성령론적 감각]

『주님의 기도』 중에,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도 용서하겠습니다]라고 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하느님의 용서를 바라면서 우리들이 잘못된 이를 용서할 것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루카 6.36)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마태오 5.48),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3.34)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해봅시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 말씀들은 하느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께서 스스로 본보기가 되시어 우리또한 그렇게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죄의 용서를 바라며 고해할 때, 하느님 아버지로 부터 자비의 사랑이 넘쳐 흐르지만, 자신을 모욕한 사람에 대하여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 자비의 흐름은 우리들의 마음까지 전해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들이 사람들로 부터 받은 모욕이나 그 마음의 상처를 이겨 내는 것은 자기 자신을 성령에 맡기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인간은 성령의 의해서 죄를 용서 받고, 회심하여 죄를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것 입니다. 우리들은 바오로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는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살아 가야 합니다. 우리는 잘난 체하지 말고 서로 싸움을 걸지 말고 서로 질투하지 말아야 합니다](갈라디아 5.25-26).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기 위해서 성령의 이끄심에 자신을 맡기고 성령의 열매(갈라디아 5.22)를 맺는 순수한 마음을 갖을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 12. 성모님과 함께 마음의 순례를

[신앙의 마리아적 감각]

[성무일도]의 저녁 기도에서 우리들은 복음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루카 1.46~55)를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구세주 하느님을 생각하는 기쁨에 이 마음 설레입니다. 주께서 여종의 비천한 신세를 돌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온 백성이 나를 복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해 주신 덕분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는 대대로 자비를 베푸십니다].

성모님께서서는 하느님의 아들을 잉태한 자신에게 주어진 영예는 결코 자기 자신의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비천한 여종을 가없이 보신 하느님의 자비에 의한 것임을 찬미합니다.

자비의 특별 회년에 우리들도 성모님처럼 신앙과 겸손을 바라며, 하느님의 자비를 찬미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우리들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생활속에 숨겨진 행위안에서, 든든하게 늘 함께해주신 하느님께 감사하며, 지금도, 지금부터도 변함없이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대한 신뢰와 희망을 가지고 성모님과 함께,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의 문을 향해 마음의 순례를 합시다.

2016년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의 대축일

가톨릭 교도교구 주교

+ 바오로 오오츠카 요시나오